



여수 김석철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강원훈



장성 반정모



장흥 김종민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회산 박순철

화순군, 만연산 치유의 숲 개장한다

화순 만연산 치유의 숲이 문을 연다. 화순군은 최근 만연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 12일 오전 10시 치유의 숲 센터에서 개장식을 갖는다고 11일 밝혔다.

화순군에 따르면 118억원을 들여 화순을 통구리 산 1-1번지 일원 120ha에 2011년부터 6년간 치유의 숲을 조성했다.

주요 시설로 치유의 숲길을 비롯해 치유의 숲 센터, 오감연결길, 건강명상숲 등이 들어섰다.

만연산 치유의 숲은 조성 초기인 2013년 11만명, 2014년 24만명, 2016

오늘 오전 10시 치유의 숲 센터서 개장식 만연산 일원 120ha에 치유의 숲길 등 조성

년에는 27만명이 찾고 있으며 오감연결길은 인근 광주시민 등 외지인이 자주 찾는 산책코스라고 인가다.

만연산 치유의 숲이 각광받는 데는 공기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음이온이 풍부하고 피톤치드의 주성분인 알파피넨이 타 지역보다 높아 치유의 숲에서 걷기, 삼림욕 등 치유 활동을 하기에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남도에 조성중인 8개의 치유의 숲 중에서 두 번째 개장하는 곳으로 소나무, 참나무 등을 주 수종으로 하는 천연림에 조성된 치유의 숲으로는 전남도내에서 첫 번째다.

최근에 준공된 치유의 숲 센터는 20여억원을 들여 목구조 2개동으로 건립됐다.

특히,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화순 고인돌을 모티브로 이미지를 형

상화하고, 숲속 경관과 조화로운 목구조 건축물로 만연산 치유의 숲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다.

체성분분석기, 스트레스 및 혈관건강측정기, 합합측정기 등이 구비된 자기검진실과 치유체험실, 세미나실, 기타 편의시설 등을 갖췄다.

이날 개장식은 구충곤 화순군수, 군의회 의장, 산림청과 전남도 관계자, 사회단체장과 지역민 등이 함께 한 가운데 개장식과 기념식수에 이어 치유의 숲 센터 둘러보기, 오감길 걷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화순=박순철 기자



광양교육지원청, 자기주도학습 캠프 개최

학생·학부모 가족 100명 참여

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임원제)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동광양중학교에서 학생·학부모 가족 100명을 대상으로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자녀의 학습력을 키워줍니다'라는 주제로 자기주도학습 캠프를 열었다.

주말 이틀동안 진행된 이 행사는 학생의 자기결정력을 높여 자기주도 학습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하였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는 함께 사례 중심의 강의를 듣고, 직접 활동하고, 발표 하는 시간을 통해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을 운영한 송실대학교 CK 교수·학습개발연구소(대표 최성우·김관수 교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기주도학습 방법 개발연구소로 이번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의 학습 습관 검사, 메타인지 이론에 기반한 학생과 학부모의 관계 분석,

학습전략 세우기, 노트정리 방법, 시간관리하기 등 자기주도학습 능력 신장 방법을 안내하였다.

캠프에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과 참여 활동을 통해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 이해하고, 바람직한 가족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캠프에 참여한 송상원(동광양중) 학생은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자기주도 학습을 이해하는 시간이었고, 꿈과 의지, 그리고 시간관리 등을 통해 실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임원제 교육장은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 자녀와 부모, 부모와 교사 등 교육 주체들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가 한 자리 모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동부취재본부장=김승호 기자

순천시-카이스트, '4차 산업혁명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

전통산업단지 연구원 파견 스마트화 모델 발굴·인력 양성



순천시는 10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신상철 총장)과 대진 카이스트에서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전국 기초 지자체 중에서 최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카이스트가 보유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 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이다.

협약에 따라 카이스트는 관내 전통산업단지에 4차 산업혁명 플랫폼을 구축하고 단지 내 기업 중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이 가능한 중소 중견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카이스트는 업무협약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곳에 연구원을 파견해 기업별 스마트화 모델 발굴과 4차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사업 초기에는 전통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관내 산업단지 기업 가운데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이 가능한 기업을 선정해 성공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시와 카이스트는 본격적인 플랫폼

구축에 앞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에 대한 사전 조사와 분석,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순천시는 기존 제조업 생산라인에 4차 시스템을 접목함으로써 지식을 기반으로 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태양광, 전기 등 신재생 에너지와 연계시킴으로써 순천만습지 보전 등 친환경 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아시아태평양문화중심 도시를 추구하는 순천시의 위상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전통 제조업을 혁신하는 중소기업 4.0 협약 체결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며, "서면산단 등 기존 사업단지 뿐 아니라 새롭게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 등도 카이스트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종영 기자

광양시, 우수기 대비 하수관로 일제 정비

광양시는 이물질 퇴적으로 우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고 생활 악취의 원인이 되고 있는 중마동 주거 밀집 지역 및 시가지 하수관로를 우수기 이전에 준설한다고 밝혔다.

시는 2천 2백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 중마동 일원 하수관로 7.7km구간을 대상으로 200여m의 퇴적물을 준설한다.

또한, 상습 퇴적과 악취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을 중심으로 준설함으로써 악취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심지 침수피해를 예방해 나간

다.

특히, 모기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퇴적물에 방역을 수시로 실시해 여름철 주민들의 보건위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진보현 하수도과장은 "이번 준설을 통해 우수기 집중 호우 시 발생하는 오수범람을 사전에 예방하고 악취발생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해 시민 보건위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양=김충권 기자

나주시,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나주시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주민의 관심 제고와 이해를 돕기 위해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1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운영한다.

나주시는 그동안 일회성으로 운영해오던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올해부터 (사)지역미래연구원 참여예산센터에 위탁, 찾아가는 교육 방식을 통해 주민의 참여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예산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11일 영산동 주민센터에서 시작되는 찾아가는 예산학교는 오는 14일 금남동 내비센터 준비반(09:30)과

산포면복지회관(14:00)에서, 20일(18:30) 빛가람동주민센터에서 각각 개최될 예정이며,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주 교육내용은 ▲지방예산의 이해, ▲참여예산 우수활동 사례, ▲참여예산 제안서 작성절차 및 편성흐름도 등이며, 예산에 대한 기초 개념 정립과 더불어, 참여예산위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는데 주안점을 뒀다.

과정을 수료한 시민들에게는 수료증을 증정하며, 수료자는 향후 주민참여예산위원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노사민정 역량 JUMP-UP 워크숍

순천상공회의소

순천상공회의소(회장 김종욱)는 최근 1박2일간 나주혁신도시 엠스 테이호텔에서 순천시 노사민정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순천시노사민정협의회의 역량 JUMP-UP 워크숍"을 개최했다.

같은 워크숍은 순천시 노사민정 협의회의 역량을 결집하여 청년의 삶이 보장된 행복도시 순천을 구축하기 위해 개최하였으며, 노사민정협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초청 강연과 토론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초청 강연은 코리아교육개발원 양정하 원장이 "순천시 노사민정 활성화 방안" 주제로 강연을 하였고, 코리아노무법인 고영두 부장이 "고용과 노사문제 해결능력과 갈등해결"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토론회는 순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에 대한 순천시 노사민정의 역할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순천상의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지역의 경제 주체간의 네트워크 형성과 각 분과별 사업의 통합적 논의를 함으로써 순천시가 추진하는 청년이 함께 참여하는 청년도시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노사민정 협의체가 한차원 높은 역할을 담당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의 양대노총과 함께 지역의 노사정 파트너십을 발휘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고용노동현안 토론회, 순천 청년포럼, 노사갈등조정 전문가 역량 강화 교육 등 노사민정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순천=김종영 기자

세계인의 밥상
이제부터 한식입니다

세계적인 한류의 열풍은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과 이에 따른 한식의 위상을 높여 놓았습니다.
한식의 세계화는 문화의 조성과 우리음식의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식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올바른 식문화의 정립과 한식의 표준화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한식의 세계화는 이루어 집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